

코스피 ‘불장’에 연기금도 국내 주식 사들인다

6월 이후 5개월만 순매수 전환

실적호전 확인·정책우려 해소

패시브 자금 진입 조건 갖춰져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역대급 ‘불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 중순부터 꾸준히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던 연기금도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21일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연기금은 이날 1일부터 20일까지 2천592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기관 전체 순매수 금액(4천892억원)의 5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월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월별로도 순매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 경우 연기금은 6월 이후 5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게 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연기금은 작년 하순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연속으로 12조2천200억원을 순매수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인지력 논란 끝에 대선 가도에서 낙마하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지던 작년 하순부터 외국인 자금이 빠져들며 코스피가 하락



코스피, 연일 사상 최고치

21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5포인트(0.24%) 오른 3,823.84로 종로했다. /연합뉴스

세를 그리자 저가매수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연기금은 코스피 불장이 시작된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1조6천75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그러나 코스피가 지난달 중순 전인미답의 영역이었던 3,400선을 사상 처음 돌파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1-4거래일 간격으로 3,500선과 3,600

선, 3,700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자 ‘사자’로 돌아선 모양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 발표

가 분수령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적 드라이브와 관련해 마지막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까에 대한 부분도 친시장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요컨대 국내 기업 실적이 확실히 돌아선 게 확인되고, 정부정책과 관련한 우려감도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연기금과 같은 패시브 자금의 시장 진입 조건이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연구원의 진단이다.

그는 “여전히 여러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일부 양극화 속에서도 계속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원동력”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중장기적 전략 차원에서 패시브 자금이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연구원도 “6월 이후(국내주식) 비중을 줄이던 연기금이 이번 달 들어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면서 “증시 전체적으로 레밸업(상승)이 이뤄지면서 포지션 여유가 생기자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북로로징(장바마감)을 앞둔 연말 수급 수요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 필요성이 계속 언급되는 등 정치적 부분도 조금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김 연구원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GICON, 광주영화제작지원작 ‘양양’ 개봉

국내의 우수 영화제서 작품성 인정 받아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21일 “지난 2020년 광주영화제작지원사업 선정작인 영화 ‘양양’이 22일 전국 개봉한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 영화 ‘양양’은 술에 취한 아버지의 전화 한 통으로 ‘고모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양주연 감독이 40여년간 가족사 속에서 지워진 고모 양지영의 흔적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후

가족들 사이에서 금기시된 고모의 이야기를 조카가 다시 불러내며, 78분 동안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을 새롭게 써 내려간다.

이 작품은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을 시작으로 제21회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26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에 공식 초청됐으며 제15회 광주여성영화제 개막작 상영, 제11회 부산여성영화제 대상 수상 등 국내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올해에는 제12회 부다페스트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세계 3대

다큐멘터리 영화제 중 하나인 제32회 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Hot Docs)에 초청돼 국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양양’은 잊혀진 가족의 기억을 되짚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여성의 서사를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창의적인 영화인들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경총, 24일 윤익 시립미술관장 초청 금요초찬 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오는 24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미디어아트 전문가 윤익 광주시립미술관장을 초청해 ‘아트와 경영의 만남 그리고 세계 기업가들이 만든 예술의 공간’을 주제로 제170회 금요초찬 포럼 특강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분야 책임심 의위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광주시 범 시민지원단 위원으로 활동한 윤 관장은 현재 광주시립미술관장으로 광주국제미술전람회 아트광주와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총감독을 역임했다.

이번 강연은 ▲예술의 공간 미술관의 파리 루이부롱 미술관, 피노컬렉션, 리움 미술관(이건희), 간송 미술관 ▲미술품 수집 ▲순수한 문화적 활동의 아트컬렉션 ▲향후 경제적 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아트테크 ▲미술시장의 구조 ▲국제아트페어 ▲대박난 아트테크 ▲구매한 미술품 집에서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임재만 기자

라면 등 K-푸드 열기 타지키스탄 확산

aT, 수도 두산베서 대규모 홍보 행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1일 “지난 18일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 ‘K-푸드 페스티벌(Korean Food Festival 2025)’을 열고 K-푸드의 매력을 대대적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CIS(독립국가연합)는 최근 K-푸드의 블루오션 시장으로 부상되는 곳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국식품 소비가 확대되며 지방 소도시에도 다양한 K-라면을 종류별로 맛볼 수 있는 ‘라면카페’가 퍼지는 등 인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타지키스탄은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 소비가 급증하는 지역이다. 수도 두산베에는 K-분식, K-베이커리 등 한국식품 전문점이 속속 들어서며 성장 잠재력이 큰 신규 수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aT 이러한 현지 분위기에 발맞춰 시간과 장소 제약이 없는 뉴미디어 홍보와 현지 대형 쇼퍼몰에서의 B2C 행사를 결합해 수출의 초기 시장 맞춤형 마케팅으로 기획해 K-푸드 매력 향

보에 나섰다.

행사에 앞서 20-30대 핵심 소비층을 겨냥한 인플루언서 연계한 SNS 마케팅과 쇼퍼몰 등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장소에서 한국 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홍보 영상을 송출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K-푸드 쿡킹쇼부터 퀴즈, 요리 경연대회, 시음·시식 행사와 K-POP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현장을 찾은 2천여명의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CIS 시장은 한국 식품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수출 유망지역 중 하나”라며 “특히 타지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K-푸드의 입지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현지 맞춤형 전략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까지 한국 농림축산식품의 CIS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3억7천만 달러로 라면(6천만달러, 49.8%), 조제품 기타(3천600만달러, 16.6%), 소스류(3천400달러, 2.5%)가 수출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안태호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